

. 제주, 오키나와의 투쟁의 기억 : 까마귀와 소라게 이야기*

이연숙**

국문요약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역사적인 문맥에서 유사점이 많다. 즉 한국과 제주도, 일본과 오키나와의 관계는 양쪽 모두 중심과 주변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심과 주변의 관계성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전후하여 제주도와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비참한 싸움, 이른바 '4.3봉기'와 '오키나와 전투'를 통해 더욱 아프게 각인되었다. 그러나 이 투쟁의 기억은 역사 밖으로 내몰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꺼져 가는 이 투쟁의 기억을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우리들에게 환기시킨다.

본고에서는 김석범(金石範)의 『까마귀의 죽음』과 메도루마 슌(目取眞俊)의 『흔 집어넣기』라는 작품을 통해 투쟁의 기억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두 작품은 문학적인 차원에서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작품 모두 '까마귀'와 '소라게'라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메신저를 통해 참화의 기억을 소생시키려 한다. 이는 근대가 활취고 간 참화의 기억을 제주도와 오키나와에 남아 있는 전 근대의 소박한 신앙으로 치유하려는 간절한 바람이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7년 5월 4일에 개최된 2007 제주민속의 해 지정과 탐라문화연구소 40주년 기념 '동아시아 속의 제주 민속'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히토쓰바시대학 언어사회연구과 교수

주제어 : 중심, 주변, 4.3 봉기, 오키나와 전투, 기억

한국과 제주도의 관계는 일본과 오키나와의 관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양쪽 모두 중심과 주변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중심과 주변의 관계라는 시점을 취할 경우 여기에는 중층적 의미구조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지리적으로 한국에서의 제주도가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의 오키나와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도가 한국의 남단에 떠 있는 섬이듯이, 오키나와는 일본의 남단을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역사적으로도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깊이 드리워져 있다. 제주도가 일찍이 탐라국이라는 독립왕국이었지만, 백제와 신라에 복속과 독립을 반복하다 고려 창건 이후 점차 복속의 도를 더해갔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완전 통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류큐국(琉球國, 1879년 메이지정부에 의해 오키나와로 개명됨) 또한 17세기 초반 일본의 사쓰마번(薩摩藩)의 세력 하에 놓일 때까지는 독립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다. 사쓰마번은 하나의 지방정부로서 근세 일본의 막번체제(幕藩體制) 하의 정치시스템에서는 고도의 자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류큐왕국의 사쓰마번에의 종속은 탐라국의 조선국에의 종속 통합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당시 일본은 거의 쇠국상태에 있었고, 사쓰마번이 류큐국과의 관계에 집착한 것은 류큐와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쓰마번은 류큐왕국을 멸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류큐왕국이 중국과 교역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았다. 류큐왕국은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책봉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식으로 류큐가 일본에

편입된 것은 메이지(明治) 시대 1879년 이른바 '류큐처분'에 의해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류큐왕조가 부정되면서, 오키나와현이 설치된 시기부터이다. 따라서 오키나와는 애초부터 일본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식민지로서 일본에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한국과 제주도의 거리감이 일본과 오키나와 사이의 거리감보다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 지식인들 중에는 '오키나와 독립론'을 주장하는 계보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이와 같은 사상운동이 눈에 띄게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오키나와 독립론'은 단순히 정치적 독립운동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키나와라는 공간과 역사를 일본의 틀로부터 해방시켜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새롭게 배치하려는 운동이다.

일찍이 류큐왕국은 바다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대륙에서 동남아시아에까지 이르는 교역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바다의 네트워크라는 점에서는 제주도 또한 이에 뒤지지 않는다. 조선왕조는 1629년에 제주도민에 대해 출도금지령(出島禁止令)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민과 해녀들은 바다를 넘어 본토로 해외로 활동의 장을 찾았다. 오키나와의 경우 북쪽으로는 일본에서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네트워크가 펼쳐졌던 것처럼, 제주도도 북쪽에 있는 조선의 영토 너머 동중국해에 떠 있는 섬들과의 관계—그 속에는 오키나와도 포함된다—를 이루었다. 시각을 180도 바꾸면, 주변이었던 것이 중심이 된다. 동중국해를 기점으로 시각을 바꾸어 보면, 지금까지 중심에 위치한다고 생각되었던 한국과 일본의 본토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 제주도와 오키나와야말로 동중국해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매우 유효하다. 그러나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바꿀 수는 있다 해도,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주변은 주변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안고 있다.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옹고하기 쉬우며, 그곳의 문화의 다이내미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석고처럼 변한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중심을 향하는 구심력은 고정된 질서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에 비해 주변에 위치하는 것은 중심의 질서가 수용할 수 없는 다이내믹한 생명력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방한 힘도 중심 속으로 회수되면 본래의 다이내미즘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근대사회의 피곤에 지친 사람들은 오키나와라는 자연 속에 '치유'를 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키나와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파란 하늘과 소박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월급쟁이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오키나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향을 폄하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바라보는 오키나와는 오키나와의 일부이지 현실의 오키나와는 아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본토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오키나와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군기지가 토지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전투기가 빈번히 이착륙을 계속하는 오키나와를 본토사람들은 외면하려 한다. 이와 같은 경향에 반발하는 오키나와 젊은이들 중에는 본토사람들을 향해 "오키나와를 동정하지 않아도 좋다. 관심을 갖지 않아도 좋다. 다만 기지를 가져가달라"고 외친다.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넘기 어려운 장벽의 상징은 오키나와 전투이다. 일본에서 미군과 지상전이 있었던 유일한 곳이 바로 오키나와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군의 본토상륙을 막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오키나와에서의 전투를 질질 끌었다. 이처럼 길고 길었던 전투에서 오키나와는 인구의 삼분의 일

을 잃었다. 그 중에는 일본군의 강요 속에 벼랑 끝에 내몰렸던 주민들의, 천황을 위한 '집단지결'까지 있었다.¹⁾ 그것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 본토와 제주도 사이에도 넘기 어려운 장벽은 있다. 소위 '4.3붕기'가 그것이다. 일본과 오키나와, 한국본토와 제주도 사이에는 말없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지만, 그 보다 높은 장벽은 '투쟁'을 둘러싼 기억의 엇박자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지도 모른다.

오키나와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전후하여 비참한 싸움이 있었다. 여기서 비참함이란 싸움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죽음으로 내몰린 것을 가리킨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이다. 이 이상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투쟁의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귀를 기울이면 숲속에서, 아니면 바다의 파도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 형태가 아니다. 이러한 부재하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소설가이다. 필자가 보고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소설가, 김석범과 매도루마 순(目取眞俊)은 이러한 투쟁의 기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자신들의 뼈를 깎는 작가들이다.

1) 이 '집단지결'에 대해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일본군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순국미담으로 왜곡하려 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6월에 2008년부터 사용될 예정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오키나와 전투의 '집단지결(강제 집단사)'에서 일본군의 강제를 나타내는 기술이 문부과학성의 검정에서 삭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오키나와에서는 이에 항의하여 9월 29일에 11만 명이 집결한 가운데 '교과서 검정의견 철회를 요구하는 현민대회'가 열려 검정의견 철회 및 관련 기술 회복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김석범은 1925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재일조선인이다. 부모님은 모두 제주도출신인데, 김석범이 태어난 때는 부모님이 제주도에 일본으로 온 직후였다. 식민지시대에 제주도와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1923년 제주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항로가 생기면서, 정기연락선 '기미가야마루(君が代丸)'를 타고 많은 제주도사람들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관서지방으로 건너갔다. 1934년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인구의 사분의 일이 일본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오사카 조선인 사회에 또 하나의 제주도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일본에 와서 정주하지 않고 제주도와 일본을 왕래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석범의 경우는 열세 살 때 처음으로 제주도에 갔었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제주도를 다녀왔다. 김석범이 직접 쓴 연보를 보면 그는 열다섯 살 때부터 자신의 고향을 태어나고 자란 오사카가 아니라 제주도라고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실 김석범은 일본과 조선을 빈번하게 왕래한다. 1943년부터 1944년까지 일 년 가까이 제주도에 체재하기도 했다. 1945년 3월에는 징병검사의 명목으로 서울로 건너가 6월까지 머물다 도쿄로 간다. 그러나 조국에서 '해방'을 맞지 못한 억울함 때문에 11월에 다시 서울에 간다. 그리고 1946년 여름, 한 달 예정으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그 이후 김석범은 1988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김석범은 서울에서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독립운동 조직에 가담했다. 이러한 운동에 대한 탄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당시의 김석범의 동료들은 거의 살해당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김석범은 일본에 건너갔기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운동의 동지들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석범은 평생 엄청난 회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김석범의 라이프워크라고 불리는 작품은 ‘제주도 4.3사건’을 무대로 하는 장편소설 『화산도(火山島)』이다. 『화산도』는 1976년부터 잡지에 연재되기 시작하여 그 후 약 20년간에 걸쳐 집필되었으며, 1997년에 전 7권이 완성되었다. 400자 원고지 11,000매에 이르는 대작이다. 그러나 김석범의 연보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던 1949년 4월 당시 김석범은 제주도에 없었다. 그렇다면 김석범은 어떻게 ‘제주도 4.3사건’을 알게 되었던 것일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빈번히 오갔던 제주도와 오사카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자. ‘4.3사건’을 계기로 많은 제주도민들이, 어떤 경우에는 친척을 의지해 어떤 경우에는 혈혈단신으로 오사카로 도망갔다. 김석범은 이들로부터 끝없는 이야기를 듣고 ‘제주도 4.3사건’의 비참함에 심한 충격을 받는다. 충격의 여진이었을까, 김석범의 글에는 제주도에서 도망 온 젓가슴 잘린 여성의 이야기가 소설과 에세이에 여러 번 등장한다.

하지만 『화산도』는 결코 논픽션은 아니다. 무엇보다 김석범은 조선이 해방을 맞을 때에도 서울에 없었고, ‘4.3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제주도에 없었다는 강한 결락(欠落) 의식에 괴로워한다. 그것은 역사적인 결정적 시기에 조국에 있지 않았음에 대한 처벌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죄의식이다. 이 때문일까, 김석범은 ‘고향’을 상상력의 세계에서 재창조하려 한다. ‘허구’의 통로에 의해서만 ‘고향’에 이를 수 있다는 자기 모순이 김석범을 빈민에 빠지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석범은 이러한 빈민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허구’를 ‘어쩔 수 없는 차선택’이라 보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허구’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있음을 명료히 인식한다.

김석범은 자기가 없었던 제주도, 그러나 만약 거기에 있었다면 살아 남지 못했을 제주도를 ‘허구’로서 그려낸다. 김석범은 ‘허구’를 통한 현

실의 초극을 스스로의 과제로 삼았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패배해 사라진 자들의 꿈이나 유토피아는 결코 현실화되지 못한 채 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흔히 역사의 자료는 승리한 자가 남긴 것이라 한다. 문서에 남아 있지 못한 사람들의 꿈과 소망을 김석범은 '허구'를 통해 재현하려 한다.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긴 작품을 쓸 수 있느냐고 김석범은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판은 김석범의 문학적 인식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어느 누구도 '4.3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던 시기부터 김석범은 무언가에 홀린 듯이 '4.3사건'을 소설의 제재로 그 비참함과 잔혹함을 고발해 왔다.

1957년에 발표한 중편소설 『까마귀의 죽음(鴉の死)』은 김석범의 문학적 출발점이다. 이 작품이야말로 『화산도』의 원형이 되는 작품이다. 1957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과연 어느 누가 혼을 바쳐 '4.3사건'을 문제화할 수 있었을까.

『까마귀의 죽음』은 특이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등장인물들은 미군정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 정기준, 빨치산 활동을 하는 남로당원 장용석, 장용석의 여동생이며 정기준의 연인인 양순, 지주의 아들이지만 세상을 비탄하게 보며 허구한 날 술만 마시는 이방근,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 주는 것을 가업으로 하는 "덴보할아범"이다. 김석범의 작품세계에 깊이와 부피를 실어주는 것은 언뜻 보면 이야기의 주제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한 후자의 두 사람—이방근과 "덴보할아범"—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작품 속에는 매우 충격적인 에피소드도 켜어 있다. 예를 들면 "덴보할아범"은

빨치산의 잘린 머리를 대나무바구니에 넣어 등에 지고 다니며 이것은 빨치산의 지인, 가족이 밀고한 결과라고 선전하며 돌아다닌다. 이와 같은 에피소드가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김석범이 누군가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의 포인트는 미군정청에 근무하는 정기준이 사실은 남로당원이며, 스파이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준은 장용석과 정기적으로 만나 군대나 경찰의 움직임을 상세히 전달한다. 그러나 스파이는 결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연인 양순은 정기준에게 미군정청에 근무하는 것은 “배반”이라고 그를 심하게 비난하고, 그 때문에 둘은 헤어지게 된다. 여기까지라면 정치적 혁명운동과 인간적 사랑의 이율배반에 괴로워하는 주인공이라는 상투적인 도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석범의 상상력은 그러한 우리들의 도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기준은 수용소에서 투옥된 양순과 재회한다. 정기준은 양순을 도와 주려고 생각하지만,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된다는 스파이의 임무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재회한 이튿날 양순은 부모와 함께 처형된다. 정기준은 창 너머로 사형을 날날이 보고 있다. 다음 문장은 그 장면의 묘사이다.

집행과 그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의 높은 울림도 이제는 기준에게 어떤 감개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형장의 돌벽 위에는 일렬로 말뚝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훑날리면서 광장의 전체를 메우는 것 같았다. 하얗게 쌓인 눈 속을 여기저기 검은색으로 염색한 것은 두세 마리의 까마귀였다. 거기에는 크나큰 슬픔과 분노의 술렁거림도, 또 피에 굶주린 야수의 포효도 없었다. 조용히 내리기만 하는 눈발처럼 그 처형을 지켜보는 군중의 침묵에 기준은 참을 수 없는 초조함과 분노를 느꼈다²⁾

여기서 까마귀는 ‘슬픔’ ‘분노’ ‘포효’를 봉인하는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까마귀는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낸다. 처형 다음 날, 정기준은 미군정청에서 본토로부터의 병력보강과 대규모의 “빨치산 섬멸작전”이 계획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계획에 멍해진 정기준은 건물을 나왔다. 거기에는 감방에서 멧대로 던져져 이송되어 가는 시체 몇 구가 널려 있었다. 그 때 머리 위로 큰 소리로 우는 까마귀 지저귀이 들렸다. 까마귀는 나무 아래에 널려 있는 소녀의 시체를 공격하려 했다. 까마귀가 갑자기 날개를 펴고 시체 옆으로 날아가 앉았을 때, 기준은 기괴한 느낌 속에 무의식적으로 숙주머니에 들어 있는 권총을 꺼내 까마귀를 사살한다. 그 총성을 듣고 상사인 부장이 나와 기준의 사격솜씨를 칭찬하자 기준은 전신에 분노가 밀려움을 느끼면서, 이놈의 부장을 쏘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힌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이에 기준은 권총을 발사한다. 그러나 기준은 옆에 있는 부장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무 아래에 누여 놓은 소녀의 시체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부조리한 장면이 수수께끼만 남긴 채, 이 작품은 막을 내린다.

문예비평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논하는 것은 필자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소설을 읽고, “까마귀”는 무엇의 상징일까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물론 상징이 상징인 한, 하나의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현실의 다양함과 복잡함이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응축되어 있다. 정말이지 김석범의 “까마귀”의 이미지는 단순한 해석을 거부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후일 오키나와의 작가 메도루마 순의 작품 『혼 집어넣기(魂込め)』(이 것을 일본 본토발음으로는 “타마코메”로 읽지만, 메도루마는 오키나와

2) 金石範, 『鴉の死』, 講談社, 1985, 121쪽.

말로 “마부이구미”로 읽어 줄 것을 요구한다³⁾를 읽었을 때, 여기에서 김석범의 “까마귀”의 이미지가 겹쳐져 옴을 느꼈다. 우선 메도루마 숲의 작품을 소개하기로 한다.

메도루마 숲은 1997년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메도루마는 오키나와에서 태어나 오키나와에서 자랐으며, 지금도 오키나와에서 살고 있다. 메도루마의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오키나와의 현실이며, 그 중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오키나와전투의 비참한 기억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에서 지상전이 펼쳐졌던 유일한 곳은 오키나와이다. 이미 패색이 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키나와를 전장화함으로써 전쟁종결의 시기를 늦춰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을 맞이하려 했다. 오키나와전투는 1945년 3월말에 시작하여 6월말에 끝이 났다. 약 삼 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일본측의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전부 19만 명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오키나와 출신이 약 12만 명, 그 중 약 9만 명 이상이 민간인이었다. 부상자수는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다. 당시의 오키나와현의 총인구는 45만 명, 결국 세 사람에게 한 사람 꼴로 사망하거나 다친 셈이었다.

오키나와전의 비참함은 전장의 희생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키나와에서는 본토의 일본어와 매우 다른 오키나와어를 쓰고 있는데, 그 오키나와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미군의 스파이로 여겨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일본군의 명령으로 마을사람들이 집단자결을 한 경우

3) 역문 제목과 관련하여, 한국어 어감으로는 ‘넘들입’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으나, 원제목의 어감을 생생히 살리고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옮긴다. 자연스러운 번역이 때로는 원작품의 의도를 뒤흔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도 있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일본군은 자기들을 지켜주는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군과 다를 바 없는, 때로는 그 이상으로 더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아사직전의 상태에서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메도루마의 부친은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살아남은 세대로, 세상을 뜨기 전에 메도루마에게 자신의 체험을 매우 자세하게 들려주었다고 한다.

전후 오키나와는 미국이 통치하게 되었고, 많은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그 기지들은 아시아 군사전략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 베트남전쟁 때에는 많은 폭격기와 전투기가 오키나와 비행장에서 발진했다. 오키나와는 1972년에 '본토 복귀'가 되어 일본으로 반환된다. 그러나 여전히 오키나와의 토지의 상당부분은 미군기지가 점유하고 있다.⁴⁾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 속에 기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지 속에 오키나와가 있다”고도 한다. 메도루마는 이러한 상황을 빗대 오키나와에 전후(戰後)는 없다고 했다. 일본본토가 ‘평화’ 속에 있음에 반해, 오키나와는 늘 ‘전쟁’을 이웃삼아 살아가고 있다.

메이지 초기 오키나와가 일본영토에 편입된 이래, 오키나와사람들은 차별에 고통받아 왔다. 전쟁 전에는 오키나와에는 대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조차 설립되지 않았다. 오키나와에 참정권이 주어진 것도 본토보다 훨씬 늦은 1920년이다. 그 반면 “일류동조론(日琉同祖論)”⁵⁾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 동화정책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진행되었다. 일본과 오키나와의 관계사는 이처럼 차별의 역사였다.

4) 오키나와현의 10.4퍼센트가 미군기지이다. 오키나와현은 일본전토 면적의 0.6퍼센트에 불과하나,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사분의 일이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다.

5) 일류동조론은 1879년 류큐처분(오키나와현 설치) 이후에 메이지정부의 입장에서 펼쳐진 논거이다. 즉 류큐는 인종, 언어, 문화면에서 일본의 일원이므로 당연히 일본에 통합되어야 할 토지라는 주장이다. 이는 조선을 식민지화할 때 주장되었던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과 비교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메도루마의 작품 『혼 집어넣기』를 보기로 하자. 메도루마는 일상과 비일상, 현실과 환상을 교차시키는, 이른바 마술적 리얼리즘(magic realism)—이 말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Jose Garcia Marquez)의 작품을 형용할 때 흔히 사용된다—을 구사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은 그러한 메도루마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우타라는 여성이다. 우타는 인간의 육체를 떠나 헤매고 있는 혼을 원래의 육체로 되돌리는 영적 능력을 가진 여성이다. 메도루마의 작품에서는 이처럼 비일상의 세계는 일상의 세계와 접해 있으며, 그 사이를 작중인물들이 자유롭게 왕래한다. 우타의 집 근처에는 고타로우라는 소년이 살고 있다. 고타로우는 전쟁 때 부모를 잃고 할머니집에서 자란다. 그런 고타로우를 우타는 자기자식처럼 귀여워한다. 고타로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혼을 잃어버리는 아이였다. 그 때마다 우타가 나서서 혼을 다시 불러왔다. 이번에도 고타로우가 어딘가에서 혼을 흘려버린 채 자리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타가 찾아간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상황이 달랐다. 고타로우의 몸속에는 큰 소라게가 들어있었고 입, 코, 눈에서 가위 같은 손이 나와 있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한 우타는 고타로우의 혼을 찾으러 나간다. 그의 혼을 찾은 곳은 해안가였다. 고타로우의 혼은 해변가에 앉아, 쓸쓸한 눈으로 바다의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타는 “혼 집어넣기”의 의식을 통해 고타로우의 혼을 다시 데려오려 했지만, 그의 혼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바다만 하염없이 웅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타는 날마다 고타로우의 혼이 있는 곳에 가서 의식을 행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타로우의 혼이 일어나더니 바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큰 바다용이 알

을 놓기 위해서 굴을 파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우타는 경악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바로 고타로우의 어머니 오미토가 죽었던 밤에 바다용이 알을 낳았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오키나와전투가 한창일 때 오미토는 미군의 기관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바로 똑같은 장소에서 고타로우의 혼은 바다용을 따라가 마침내 바다 속으로 아주 사라지고 만다. 우타는 그 바다용이 오미토의 환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타가 집으로 돌아가자, 고타로우가 세상을 떠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타는 고타로우의 가족과 함께 고타로우의 몸에 살고 있는 소라게를 퇴치하려고 한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겨우 소라게를 고타로우 몸에서 떼어낼 수가 있었다. 소라게는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우타는 온 힘을 다해 이것을 팽이로 내리친다. 그러나 소라게는 우타를 응시한다. 그 두 눈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다. 우타의 가슴에는 이 소라게야말로 고타로우의 어머니 오미토의 환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 그러나 소라게는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만다.

마지막 장면에서 우타는 해안가로 나간다. 우타는 생각한다. “바다 근처의 마을에 태어나 바다에서 솟아나는 것을 먹고 자라, 인간은 바다 덕분에 살다가 죽으면 바다 저편의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앞에서 부화한 아기 바다용들이 모래 위를 아장아장 걸어 파도를 향해 바다로 뛰어들고 있었다. 우타는 “이렇게 모두 바다의 저편 세계로 돌아가는가”하고 중얼거린다. 이 소설은 다음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해변가에 있는 것은 우타뿐이었다.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와 해변을 내려오자, 우타는 발소리를 파도에 씻으며 걸었다. 부딪치는 파도에는 바다반딧불이 반짝이더니 다시 사라져 갔다. 파도는 따뜻하고 부드

러웠다. 우타는 멈춰 서서 바다를 향해 손을 모았다. 그러나 기도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았다.⁶⁾

마지막의 “기도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았다”는 문장에는 메도루마의 통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오키나와전투에서 죽은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물음이 메도루마의 작품을 관통하고 있다.

메도루마의 『혼 집어넣기』에 나오는 소라게—작품 속에서는 오키나와어를 사용해 “아망”이라 부르고 있다—의 이미지는 괴이함과 함께 슬픔이 서려 있다. 이 점은 카프카의 『변신』과 비슷하다. 그러나 메도루마의 작품 속에서 소라게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상징한다기보다, 아마도 글자 그대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자가 아닐까.

『까마귀의 죽음』과 『혼 집어넣기』는 작품의 테마, 구조, 모티브, 수법도 다 다르다. 물론 문학작품의 차원에서 두 작품을 구태여 관련시켜야 할 필연성은 없다. 그러나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역사적 문맥을 겹쳐 배치하면, 『까마귀의 죽음』의 까마귀와 『혼 집어넣기』의 소라게 사이에는 유사점이 떠오른다. 제주도도 오키나와도 비참한 전쟁을 경험했다. 메도루마는 어떤 에세이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화염방사기가 뿔어지고 죽어 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눈앞을 가리는 화염뿐이었다고.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을 살아 있는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절대적인 경계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느 누구도 다시 돌아올 수가

6) 目取眞俊, 『魂込め』, 朝日新聞社, 1999, 42쪽.

없다. 하지만 전쟁의 비참함은 결코 잊을 수 없다. 아니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생과 사의 두 세계를 연결해 주는 매개자이다.

『까마귀의 죽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정기준은 까마귀를 사살한다. 『혼 집어넣기』의 마지막에서 우타는 소라게를 때려죽인다. 까마귀는 소녀를 능욕하려는 불길한 동물로서, 소라게는 고타로우의 목숨을 앗아간 기괴한 괴물로서 살해당한다. 그러나 이 살육은 새로운 회한과 상심을 불러온다. 어쩌면 까마귀와 소라게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메신저인지도 모른다.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문화에는 무녀와 점쟁이의 역할이 크다. 그녀들은 어떤 자연의 징표에서도 숨겨진 세계의 의미를 해독해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혼 집어넣기』의 주인공 우타는 직업적인 무녀는 아니지만, 보통사람을 넘어서는 영력의 소유자이다. 흔히 이러한 문화는 민속적 포클로어로 분류되어 고대의 지혜를 구비 전승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주도과 오키나와에서는 이러한 고대의 지혜가 20세기에 일어난 비참한 전쟁의 기억에 겹겹이 겹쳐져 있다. 참화의 기억은 제주도과 오키나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해독할 수 있는 포클로어로서 이어져가고 있다. 거기에는 전근대의 소박한 신앙과, 전쟁에서 흘렸던 피와, 꿇겨진 바램이, 서로 얽혀진 채로 각인되어 있다.

참고문헌

- 金石範, 『鴉の死』, 講談社, 1985.
金石範, 『「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目取眞俊, 『魂込め』, 朝日新聞社, 1999.
目取眞俊, 『沖繩「前後」ゼロ年』, 朝日新聞社, 2005.
金贊汀, 『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 岩波書店, 1985.
高鮮徽, 『20世紀の滞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1998.
中村福治, 『金石範と「火山島」—濟州島4・3事件と在日朝鮮人文學』, 同時代社, 2001.
沖繩・韓國比較社會文化研究會 編, 『韓國と沖繩の社會と文化』, 第一書房, 2001.

Abstract

Memories of Struggles in Cheju and Okinawa
: The Stories of Crows and Hermit Crabs

Lee, Yeoun-suk*

Cheju Island and Okinawa share many commonalities in geopolitical location as well as in historical context.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eju Island and that between Japan and Okinawa all constitute the relationship of center versus periphery. This center-periphery relationship was further deeply carved through the painful struggles in modern times, known as the April Fourth Incident and the Okinawa Battle, respectively, around the closing years of the Second World War. But memories of these struggles were driven out of history and disappeared into darkness. Some authors, however, remind us of these fading memories in their literary work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se memories of struggles through Kim Sökpöm's *The Death of Crows* and Medoruma Shun's *Putting Souls Back*. These two novels, despite their dissimilarities in literary tenor, all try to revive the memories of suffering through messengers (crows and hermit crabs) who connect this world to the other world. It reveals an earnest hope of trying to heal the sorrowful memories laden with war scars, which the modern period had left, by way of premodern folk beliefs and faiths.

*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Language and Society at Hitotsubashi University